

삶을 바꾸는 사람 중심의 생활SOC

김용수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부단장

- 생활SOC가 삶의 중심에서
사람의 생활과 사람 간 활동으로 연결되어야

기반시설에 대한 시대적 요구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도시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도로와 광장, 목욕탕 등의 시설은 도시를 키우는 데 기반이 되었다. 격자형 도로를 중심으로 계획되었던 고대도시부터 중세 성곽도시에 이르기까지 도로, 각종 공공건물의 배치, 배수시설 등 토목·건축적인 측면에서 공공의 도로와 시설 계획이 곧 도시계획이었다. 이후 도시 성장기에도 도시 내 팽창하는 인구를 수용할 공공시설의 규모를 예측하여 적정한 입지에 공급하는 것이 곧 기간산업이었고 전쟁으로 인한 극빈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 역시, 기반시설의 건설을 통한 경제부흥책이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도로와 철도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이에 맞게 국내총생산(GDP)으로는 전 세계 190개 국 중 11위(한국은행, 2018)에 해당하는 부국이 되었다. 하지만 2018년 UN 행복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56개국 중 57위에 불과하며 삶의 만족도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보육·복지·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여전히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미 공급된 시설도 대도시, 중심지역 위주여서 지역 간, 지역 내 격차로 인한 소외지역이나, 저성장·고령화 심화로 인하여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 저하로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조차 없는 낙후지역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삶과 생활로 연결되는 도시를 계획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의 새로운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생활밀착형 SOC 개념의 도입과 정책 방향의 전환

지난 8월 정부는 재정 투자의 패러다임을 이전의 ‘개발 중심,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사람과 지역 중심’의 질적 투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SOC 측면에서 보면 도로·철도·항만·공항·댐 등과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에서 탈피, 소규모 생활인프라(이하 생활SOC)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로,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및 공원 등 일상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를 확충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통해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에는 전년보다 50% 늘어난 총 8.6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생활SOC 사업이 일회성 사업으로 그쳐서는 국민 삶의 질 제고,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생활SOC 추진 3개년 계획(2019~2022)’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개년 계획에는 공급대상 시설, 시설별 투자기준, 연차별 투자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되던 것이 국무조정실에 구성된 생활SOC 추진단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진행된다. 그동안은 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앞으로는 지자체·지역이 사업을 기획하는 등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생활SOC 확충 전략 마련을 위한 과제

이번 생활SOC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도’, ‘지역밀착형’, ‘범부처 추진’, ‘삶의 질’,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정책 키워드와 닿아 있다. 하지만 시설이라는 물리적 하드웨어와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서 소프트웨어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하고, 범부처로 추진되며 다양한 부처(주체)가 관련되어 있는 생활SOC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SOC 확충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즉 누가(who, 주체), 왜(why, 해결 대상의 문제), 어떤 시설을(what, 대상), 어

생활SOC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

분야	10대 투자과제	주요 투자사업	규모
여가·건강 활동	①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 국민체육센터(140개소) ·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50개소)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473개소) 및 주차장 신규 조성(45개소)	1.1조 원
	②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 박물관(7개소) · VR·AR 체험존(19개 시설) · 어린이 과학관 설치(4개소)	0.6조 원
지역 활력	③ 취약지역 도시재생 	·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추진(167개소)	1.5조 원
	④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 어촌뉴딜(70개소) ·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신규 7개군) · 노후 상수도 정비(신규 28개소)	1.3조 원
	⑤ 스마트 영농 확산 	· 스마트팜 혁신밸리(신규 4개소) ·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3개소)	0.1조 원
	⑥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 노후산단 재생(펀드 조성 2,500억 원) · 정부지원 스마트 공장(4,000개)	0.7조 원
생활 안전·환경	⑦ 복지시설 기능 보강 	·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1,200개소) ·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41개소)	0.4조 원
	⑧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500억 원)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2.5만 개)	2.3조 원
	⑨ 미세먼지 대응 강화 	· 도시바람길 숲(11개소) · 미세먼지 차단숲(60ha) · 수소 충전 인프라(40개소)	0.2조 원
	⑩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 공공기관 유류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609개소) · 주택 태양광 지원(5.5만 호)	0.6조 원

자료: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일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8.8.27.

떻게(how, 방법), 어디에(when, 장소), 언제(when, 시기) 할 것인가에 대한 육하원칙에 답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추진 주체가 ‘지역’이 되어야 함은 선결 조건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은 거시적 차원의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사는 동네, 집, 가족 등 자신의 가까이에 있다. 생활SOC의 확충이 국민생활에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곳에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한 기능과 규모로 입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의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who)는 지역이 되어야 하며 해결해야 하는 지역의 시설 문제(why)의 대안으로서 필요한 시설(what)이 되어야 한다. 즉 각 시군구는 지역 내 각 종류의 시설에 대한 현황과 소요를 파악하고 소외지역이나 과밀로 인한 용량 부족 시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대상 시설의 공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정해진 지역의 필요 시설을 어떻게(how) 공급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단순히 시설 소외지역에 대한 개별 시설로서 공급할 것인지, 공급 효율이 높은 지역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설의 기능이 복합된 형태로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미이용 시설 등을 재활용할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더불어 그러한 시설이 입지하는 장소(when)는 이러한 시설 공급 방법과 절차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대부분의 시설 소외지역은 거주 인구가 적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들로, 현재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 공급 시 재정의 투입 대비 혜택을 받는 주민의 수가 적어 효율이 적어질 수 있다. 이러한 거주 밀도가 적은 지역의 경우 새로운 시설의 공급보다는 주변 중심지로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의 소외지역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할 수 있다.

시설의 신축이나 재활용 등을 통한 시설의 공급 후 이 시설의 운영, 관리 또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일시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시설의 건설 외에도 지속적으로 시설의 유지를 위해 투입이 필요한 인건비, 시설의 유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시기와 시간(when)에 대한 지속적 계획 및 운영을 위한 인력과 비용 투입에 대한 순환체계 마련을 의미한다.

대대적으로 추진될 생활SOC 정책의 첫 단추가 채워졌다. 정부의 정책 발표와 함께 범부처 추진단이 꾸려졌고 향후 3년 이상의 추진계획을 마련 중이다. 국민 개인에게는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 시설이 마련되어 내 집 주변에서 운동하고, 책을 읽고, 주민들과의 만남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설 건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삶이 풍요로워지는 건 정신적 행복감이 커지고 물질적으로는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많아질 때 일 것이다. 이런 커다란 조건을 둘 다 얻기는 매우 어렵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활동이 손쉬워지고 많아진다면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개인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SOC가 적재적소에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날을 기대해 본다.